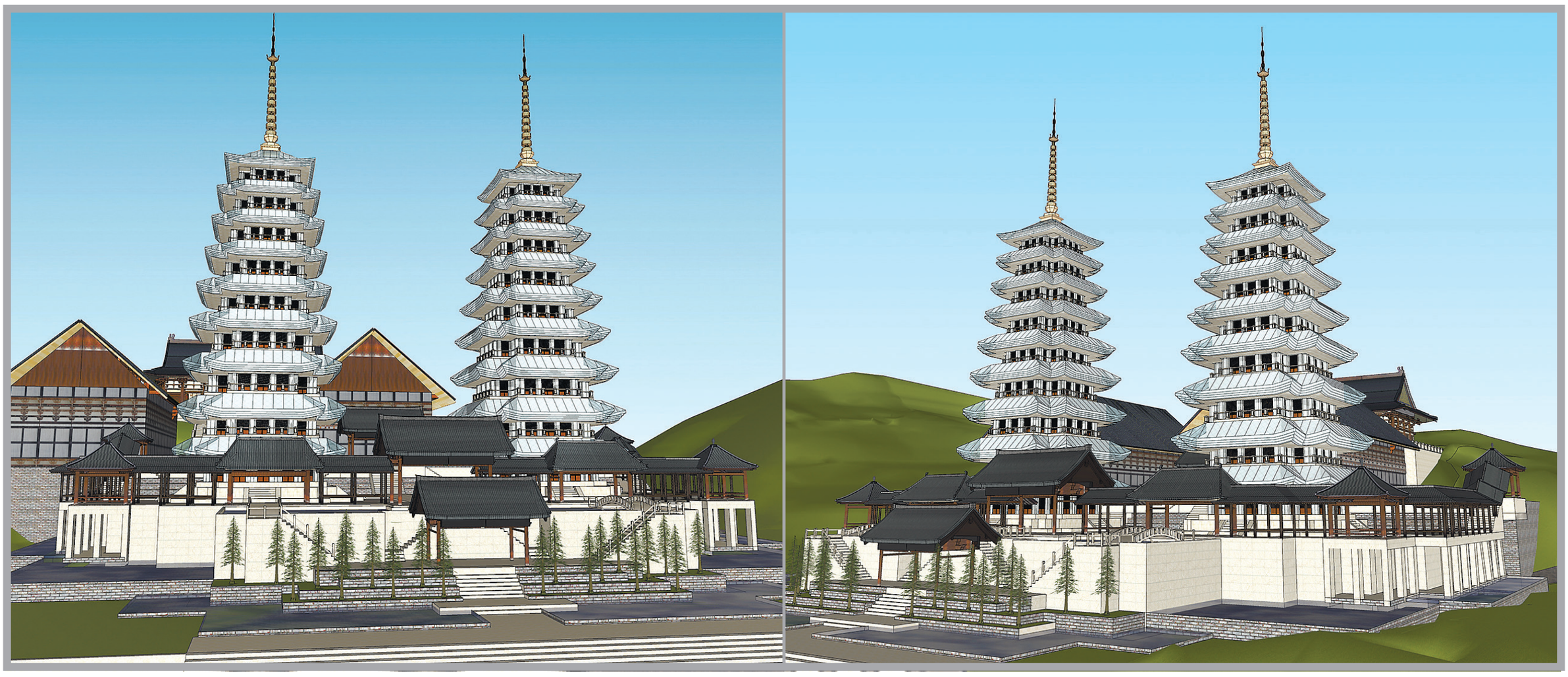


평화의 랜드마크 육지장사에 선다

평화 발원 쌍둥이 불탑

탑 높이 77m, 총면적 2천평

지하 2층, 지상 9층 구성 돼

지하엔 8만4천 탑전 들어서

2~7층, 명사평화축원문 전시

유리로 無影, 평화의 빛 표현

삼보사 창건 37주년 법회

10월 18일 양주 육지장사서

마가 스님, 마음백신 콘서트

김나래, 명상 음악과 공연도

10월 10일~11월 29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1시

차담과 건강 주제로 특강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대탑이 양주 육지장사에 건립된다. 양주 육지장사(회주 지원)는 지난해 4월 26일 양주 도리산 육지장사 광장서 평화대탑 불사 고불식을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평화대탑은 휴전선 인근지역인 양주 백석읍 육지장사 1만평 부지에 세워지는 쌍둥이 불탑이다. 탑을 세우는 것은 예로부터 사리를 봉안하고 의식을 치르기 위한 출발이었다. 그래서 예로부터 크고 작은 탑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조성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가 수용된 4세기 후반부터 여러 대탑을 세웠다. 고구려 영탑사 대탑을 필두로 고구려 청암리 팔각대탑, 백제 왕흥사 목탑, 미륵사지 목탑 등이 건설됐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 구층대탑을 통해 삼국통일의 원력을 모았으며, 고려시대에는 만복사 대탑, 조선시대 법주사 팔상전 등 1천여 대탑이 건설됐다. 이번 평화대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규모와 방식이다. 대탑은 높이 77m에 총면적 2000평을 자랑하며,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시설로는 1층 평화전시관과 함께 2~7층에는 세계명사 1800명의 평화축원문이 전시된다. 8층에는 명상원이, 9층에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지하에는 8만 대장경을 상징하는 84000탑전과 전시장, 세미나홀, 교육장 등도 들어선다. 특히 지하의 84000탑전은 세계인들의 정성을 모아 시주발원해 공존 공생의 평화세계 건설을 위한 이정표로 삼기 위함이다.

또한 남과 북, 그리고 동과 서로 나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성 속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화합한다는 불교 평등 사상을 바탕으로 두 개의 탑이 세워진다. 높은 탑은 양날개를 가진 듯 세계로 날아오르며 평화의 빛을 내뿜는다.

1 - 쌍탑은 좌우대칭으로 있으나 모든 시점에서 변화하는 하나의 탑으로 보이듯이 기획된다. 흩어지고 모이는 변화 속에 당당히 자리를 지키는 탑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2 - 구조물은 크게 탑동과 회랑동, 지하동으로 이뤄져 있다. 탑동은 철골구조 위 유리기와와 유리벽돌로 마감이 되며 회랑동은 전통한옥 목구조 위 전통기와로 마감된다. 지하동은 철골 콘크리트 구조 위 벽돌로 마감되며, 각 부분별로 다양한 자재를 활용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전통적인 팔각탑 형식에 21세기를 상징하기 위한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이 사용될 예정이다. 팔각탑은 평화의 상징으로 동서남북 등 8개 방향과 상하 2개 방향으로 시방세계를 나타낸다. 또한 유리기와와 유리벽돌을 사용해 무영탑을 표현한다. 이 탑은 그림자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형식이 될 때 가능하다. 유리로 스스로 빛을 발휘하는 탑을 통해 평화의 빛이 세계에 퍼져나가는 것을 상징한다.

평화대탑을 설계한 선건축의 대가인 김개천 국민대 교수는 "좌우대칭의 쌍탑은 무영탑으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 그리고 평화를 상징한다"며 "산자락에 위치한 대지의 조건을 훼손시키기 보다는 전통방법으로 석단을 쌓아 점진적으로 하늘로 올라는 형식을 띄고 있다. 영지에 비친 물밑의 하늘로 뻗은 모호하고 장대한 빛과 그림자의 흔적 같은 건축을 구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투명한 듯 빛을 품은 탑은 우뚝 솟아 있으나 가볍게 느껴지는 모습이 될 것"이라며 "물에 비친 모습까지 더하여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함과 장대함이 동시에 느껴지는 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불사를 추진하는 삼보사 ·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우리 민족은 이 땅에 불교가 전래 된지 1700년 동안 불교 문화의 전통을 슬기롭게 이어온 지혜로운 민족"이라며 "현재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남북 분단도 평화롭게 잘 타협해서 기필코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평화의 상징물로 이번 평화대탑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육지장사에 1만평 부지를 마련해 25년을 준비해왔다. 대탑 발현을 통해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의지와 힘을 결집시켜 평화대업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심포교 중심지로 출발한 서울 은평구 삼보사가 창건 37주년을 맞아 양주 육지장사 실외 광장서 10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매주 토 · 일요일마다 오전 11시부터 차담과 건강, 힐링을 주제로한 콘서트를 연다.

이번 행사들은 코르나 19 방역 지침에 의거해 철저히 방역을 준수할 방침이라고 육지장사 측은 밝혔다.

삼보사 (02)352-6406/육지장사(031)871-6574

삼보사 창건 37주년 법회

양주 육지장사 야외광장서 펼쳐져

▲10월 10일:1부 오전 11시~12시/2부 오후 1시~2시/3부 오후 2시~3시

최해연 고마이계 한국지부장이 차와 건강을 주제로 차담을 실시한다. 고마이계는 중국 호남성 명차로 잠 잘 오는 차로도 유명하다. 물통 지참자에 한해 육지장사 옹달샘서 나온 육각수 2통씩을 보시한다. 이 행사는 매주 토 ·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0월 18일: 삼보사 창건 37주년 기념 법회 일환으로 1부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산신제를, 2부에서는 오전 11시부터 국민멘토 마가 스님을 초청해 '코로나 블루시대 마음백신 콘서트' 를, 이어 점심공양 후 오후 1시부터는 김나래 태교음악 연구가의 3부 명상 콘서트와 국악의 선율 향연이 펼쳐진다.

▲10월 25일: 파파르챠 쥬얼리 연구소 박소현 원장이 '보석과 건강 운명' 을 주제로 1부(오전 11시)와 2부(오후 1시)로 나눠 진행한다. 특히 보석에서 얼마 만큼의 에너지가 흐르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11월1일: '어떤 물을 마셔야 건강한가?' 를 주제한 특강이 1부(오전 11시)와 2부(오후 1시)로 나눠 진행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 법 합 창 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현대불교신문 창간26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39년 전통 불자 양성 교육 포교 에
새 지평을 열어가는 명품 교육기관
하반기 신입생 모집
■ 기초교리학과 (월)
■ 불교문화학과 (수, 금)
■ 원각경 (연세대 신규탁 교수)
●11월 5일, 12일, 19일, 26일(목)
■ 범어 원전을 통한 경전의 재해석 (중승대 현진 스님)
●12월 1일~2월 23일 (화)
※ 각 학과별 매주 1회 오후7시~9시 강의
2020년 승려 연수교육
● 과 목 : 유식 30송 강설
● 교 수 : 이 만 (동국대 명예교수)
● 일 정 : 11월 23일(월)~27일(금) 총 5일간
● 시 간 : 13:30~16:30
● 수강료 : 15만원
※ 조계종 승려는 선착순 50명까지 교육시간 80%이상 이수시 승려연수 점수 30점 인정.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